보이지 않는 계산서

관심사 독해 리포트 · 2026년 10월 31일자 수집분

수집 현황: 승인 피드 19개 중 제외 2개(EerdWord, Leiter Reports)와 접근 중단 5개(The Next Recession, Conversable Economist, Jesus Memoirs, Scott Aaronson, The Comics Journal)를 뺀 12개 모두 접속됨. 전날 새 글 10편을 모두 읽고 8편을 다뤘으며, 2편은 생략 — 에콘브라우저의 차트 전용 포스트(주간 주가 그래프 1장, 배경이 된 시장 급락은 검증된 보도로 본문에서 처리)와 마지널 레볼루션의 금요일 링크 모음(단네 번째 항목은 이 리포트가 추적 중인 꼭지의 후속이라 본문 4장에서 한 줄로 인용). 8+2=10.

어제가 '저울에 올리는 일'의 하루였다면, 오늘은 그 저울이 가리키는 물건의 정체에 관한 하루다. **보이지 않는 계산서** — 정책이나 관행을 결정할 때 겉으로 드러나지 않다가 나중에, 그것도 엉뚱한 사람에게 청구되는 비용들이다. 국가가 기업의 주주가 되었을 때의 변동성과 특혜의 계산서, 가게 털이범이 물건값에 얹는 '숨은 세금', 성적을 후하게 주는 정책이 약한 학생에게 청구하는 계산서,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학술지에 갑자기 날아든 '품질 심사' 통지서까지. 마지막 꼭지는 할로윈답게 거미 이야기인데, 이 역시 겉으로 보이는 효율 뒤에 숨은 산수에 관한 이야기다.

---

1. 국가가 주주가 되면 — 인텔 폭락이 드러낸 것

[사실] 10월 30일 금요일, 인텔 주가는 28.58% 폭락한 65.76달러로 마감했다. 1974년 7월 5일(약 30% 하락) 이후 반세기 만에 최악의 하루였고, 시가총액 약 1,400억 달러가 증발했다. 역설적이게도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 3분기 조정 주당순이익 0.52달러로 예상을 웃돌았고 데이터센터 매출은 1년 새 80% 가까이 뛴 73억 달러였다. 주가를 부순 것은 전망이었다. 4분기 매출 가이던스 150억~160억 달러는 시장 예상(약 171억 달러)을 크게 밑돌았고, 주당순이익 전망도 0.25달러로 예상(0.43달러)의 절반 남짓이었다. 개인용 컴퓨터(PC) 시장 부진에 이스라엘 공장 폭발 사고(2명 사망, 약 6억 달러 매출 손실 예상)까지 겹친 결과다. 매도세는 반도체 업종 전반(AMD, Arm, 퀄컴, 엔비디아 등 4~12% 하락)으로 번졌다. 생략한 에콘브라우저의 차트 포스트('금요일 AI 폭풍')가 기록하려던 것이 바로 이 주간의 AI 관련주 동반 하락이다.

[사실] 이 폭락이 정책 뉴스가 된 이유는 최대 주주가 미국 정부이기 때문이다. 작년 8월 행정부는 주당 20.47달러에 4억 3,330만 주(9.9%)를 약 89억 달러에 사들였다. 목요일 종가(92.07달러) 기준

399억 달러였던 이 지분의 가치는 하루 만에 약 285억 달러로, 110억~120억 달러가 날아갔다. 그래도 매입가의 약 3배이므로 납세자 기준으로는 여전히 이익이다. 엔비디아가 보유한 인텔 지분도 약 60억 달러어치가 증발했다. 카토연구소의 추적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기업 지분 포트폴리오는 이제 40개 기업에 걸쳐 있다.

[사실] 카페 하이에크가 인용한 워싱턴포스트 사설(10월 30일)은 이 사건을 '국가 주식 포트폴리오의 위험'이라는 교훈으로 읽는다. 사설의 논지는 변동성 자체보다 구조에 있다 — 정부가 대주주가 되면 정부는 그 기업의 편을 들 유인을 갖게 된다는 것. 사설이 든 사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특정 외국산 첨단 로봇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인텔에만 — 다른 미국 내 생산 반도체 기업들에는 없는 — 1년 면제를 준 것, 대통령이 인텔 경영진도 몰랐던 인텔-애플 거래를 6월에 발표한 것, 인텔 최고경영자가 대형 지분 매각 전에 상무장관에게 일일이 확인한다는 보도. 사설은 중국의 산업정책(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은 SMIC가 TSMC와 삼성을 따라잡지 못하고, 국가 투자의 상징이던 전기차 산업이 내수 급감과 부실 공장 연명에 시달리는 사례)을 반면교사로 들며, 정부가 승자와 패자를 고르는 것이 투자를 왜곡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라고 결론 내린다. **[해석]** 이 리포트가 이틀 전 전한 뮬러의 경제민족주의 논문(연방정부의 약 30개 민간기업 지분 보유에 대한 비판)의 논지에, 시장이 단 하루 만에 실물 교보재를 제공한 셈이다. 정부 지분의 '숨은 계산서'는 폭락일의 평가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조용히 쌓이는 특혜와 왜곡이라는 것이 사설의 요점이며, 사설 인용 범위 안에서 전한다.

> **짧은 메모 — 관세 관련 두 가지.** **[사실]** 같은 블로그의 '오늘의 인용'은 1932년 영국 위원회 보고서 『관세: 검토된 논거』(의장 윌리엄 베버리지)에서 뽑았다 — "관세로 얻는 이점은 확실하다면 부문적이고, 일반적이라면 불확실하며, 어느 경우든 있더라도 엄밀히 일시적인 이득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 한편 링크 모음은 관세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실패했다는 한 연구소(IW) 보고서를 소개하며, "트럼프의 강박적 관심사라는 점 외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평한다. **[해석]** 94년 전의 문장과 이번 주의 무역통계가 같은 결론을 가리키는 그림이다. 무역적자가 목표 변수로 적절한지 자체는 별개의 논쟁이지만, 정책의 자기 목표 기준으로도 성적이 안 나온다는 지적이다. 카페 하이에크의 자유무역 입장에 선 소개임을 덧붙인다.

---

2. 가게 털이가 물건값에 얹는 '숨은 세금' 1%

[사실] 마지널 레볼루션이 소개한 칼 하제와 요하네스 카싱어의 새 논문(『AEJ: 경제정책』 게재)은 조직적 소매 범죄의 비용이 누구에게

가는지를 정밀하게 측정했다. 워싱턴주 대마초 소매업체 전체의 거래 스캐너 자료를 점포 단위 범죄 자료와 결합하고, 강도·절도 사건이라는 준실험적 변동을 이용했다. 결과: 범죄 피해를 입은 점포는 물론이고 *주변 경쟁 점포까지* 가격이 1.7~1.8% 올랐다. 이 상승은 단기 수요 변화로는 설명되지 않고 범죄 관련 비용 충격과 일치한다. 효과는 독립 소매점과 덜 집중된 시장에서 더 컸다. 저자들의 추산으로 범죄는 피해 점포에 약 1%의 '숨은' 단위세(unit tax)를 부과하며, 추가 사회적 비용은 3,070만 달러 — 주로 소비자가 부담한다. **[해석]** 어제의 관세 논문(쇠고기 가격 8~11% 전가)과 정확히 같은 가문의 연구다. 관세든 범죄든 점포의 비용을 올리는 충격은 가격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되며, 경쟁 점포까지 함께 올린다는 점은 '전가'가 개별 점포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단위의 현상임을 보여 준다. 범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 계산서는 결국 그 동네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나눠 낸다.

---

3. 관대함의 계산서 — 성적 인플레이션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사실] 역시 마지널 레볼루션이 소개한 또 다른 『AEJ: 경제정책』 논문(브룩스 보든, 비비아나 로드리게스, 잭 웨인가튼)은 학업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의 인과 효과를 추적했다. 교육이 인적 자본 축적의 핵심 동력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저자들은 정책이 학생의 '내생적 반응' — 정책에 맞춰 학생 스스로 행동을 바꾸는 것 — 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결과는 이렇다. 성적 산정이 관대해지면 학점(GPA)은 기계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나 하위 능력 학생들의 노력은 유의하게 줄었다 — 출석률 하락과 실제 수치 성적 하락으로 확인된다. 이 이질적 효과는 고등학교 내내 누적되어 참여도와 성취의 격차를 키우고, 대학입학 표준시험(ACT) 점수로 측정한 인적 자본의 결손을 악화시킨다. **[해석]** 이틀 전 경범죄 연구(평균 효과 0이 집단 간 상쇄의 결과였던)와 닮은 구조다. 평균 학점 상승이라는 겉 숫자 뒤에서, 정책의 수혜를 가장 필요로 하는 집단이 정작 노력을 줄이는 역설이 숨어 있다. 성적 인플레이션은 학생에게 주는 선물처럼 보이지만, 그 계산서는 가장 취약한 학생의 미래 인적 자본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경고다.

---

4. 세계 최대 학술지에 날아든 '심사 중' 통지

[사실] 리트랙션 워치의 단독 보도다. 미국 국립의학도서관(NLM)이 스프링거 네이처의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대한 MEDLINE 색인을 중단했다. 저널 수석편집인이 10월 20일 이메일로 밝힌 바에 따르면, NLM이 이 저널을 재평가하는 동안 새로 발행되는 논문의 MEDLINE 색인과 펍메드 센트럴(PMC) 아카이빙이 중단되며 펍메드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 사이언티픽 리포츠 』 는 펍메드(세계 최대의 생의학 문헌 데이터베이스)에서 색인 논문 수가 가장 많은 저널이다. 이 저널의 가장 최근 색인 논문은 9월 15일자로 멈춰 있으며, 올해 색인된 논문은 28,593편인데 저널 웹사이트 기준 올해 발행량은 41,122편이다. NLM의 규정상 재평가는 '연간 발행량이나 논문 유형의 중대한 변화' 같은 출판 관행의 변화가 있을 때 이루어지며, 통상 7~10개월이 걸린다.

[사실] 이 이상 징후를 처음 포착한 것은 언론도 학계도 아닌 독립 연구자 톰 레이히였다. 펍메드 자료 기반의 도구들을 운영하는 그는 두 달 연속 비정상적으로 낮은 색인 수치를 발견하고 NLM에 문의 티켓을 열었고, 출판사에 확인하라는 안내를 따라 질의한 끝에 재평가 사실을 처음 확인했다. 저널 측은 "최근 몇 년간의 상당한 성장에 따라" 재평가가 진행 중이며, 심사 후에는 중단 기간의 콘텐츠를 포함해 색인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널의 규모 감각: 전임 편집자 약 50명에 편집위원 11,000명 이상, 논문 게재료(APC)는 편당 2,850달러, 2025년에는 이 저널 연구가 100만 회 이상 인용됐다. **[해석]** '메가저널' 모델 — 주제의 중요도가 아니라 방법론적 타당성만으로 심사하고 사실상 무제한으로 발행하는 — 의 급성장이 드디어 색인 기관의 브레이크를 만난 것이다. 이 리포트가 이틀 연속 추적해 온 저널 거버넌스 꼭지(노르웨이 등록기관과 스프링거 네이처의 판정 충돌)와 같은 출판사에서 터진, 더 큰 규모의 건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4만 편을 파는 시스템의 품질을 누가 어떻게 보증하는가라는 질문은 이제 등록기관과 색인 기관이라는 두 개의 게이트키퍼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사실] 같은 매체의 주말 읽을거리 모음(본문에서 선별 인용, 원문 미확인 헤드라인 포함)이 보여 주는 이번 주 연구정직 풍경은 이렇다. 한 학술 출판사가 하루에 학회 논문 1,400편을 일괄 철회하는 기록적 사건이 있었고, 'AI로 가짜 과학 논문을 만들어 봤다'는 체험 기사가 화제였으며, 다트머스의 학무총장이 자신의 글이 AI 작성으로 지목된 뒤 사임했고, 교육 분야 AI 연구 메타분석 39편을 감사했더니 39편 모두 긍정 결론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스프링거 네이처와 구글 딥마인드가 AI 동료심사 보조 도구 개발에 협력한다는 소식도 있다. **[해석]** 그리고 이 리포트가 추적 중인 꼭지의 후속 — 마지널 레볼루션의 금요일 링크 모음(생략한 1편)에 따르면, 사에즈-주크만 관련 논문 감사 프로젝트가 업데이트판을 내놓았다.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추측성인 가정'과 '진정한 결함'을 분리했다는 것이다. 본 항목은 피드 본문의 링크 소개에 근거한 2차 인용으로 원문은 확인하지 않았지만, 사실이라면 이틀 전 리포트가 지적한 '감사 측 주장'의 신뢰성 문제에 감사 프로젝트 스스로 응답한 셈이어서 기록해 둔다.

5. 할로윈의 산수 — 거미는 왜 함께 살지 않는가

[사실] 크룩드 팀버의 할로윈 특집은 '사회적 거미'에 관한 과학 에세이다. 세상에 거미는 4만 종이 넘지만 함께 사는 '사회적 거미'는 겨우 20종 안팎이다. 이들은 수백, 수천 마리가 모여 길이 2미터짜리 거대한 공동 그물을 짓고, 그 그물은 큰 곤충이나 작은 척추동물까지 잡는다. 그런데 왜 더 많은 거미가 이 전략을 택하지 않을까. 답은 산수에 있다 — 효과적(effective)인 것과 효율적(efficient)인 것은 다르다. 100마리가 함께 지은 그물이 혼자 지을 때보다 80배의 먹이를 잡는다면, 마리당 몫은 오히려 20% 줄어든다. 합계는 커지지만 평균은 손해인 것이다. 그럼에도 20종이 이 전략을 유지하는 이유는 특정 조건에서 셈이 맞기 때문이다 — 먹이가 풍부해 마리당 영양 손실을 견딜 만하고, 포식자가 많아 대형 그물의 방어 효과가 크고, 기상 변동이 극심해 거미줄의 단열·안정 효과가 값어치를 하는 환경이다. 즉 사회성은 영양을 내주고 안전을 사는 거래이며, 성립하는 틈새가 좁다.

[사실] 그리고 이 거래의 극단이 '모식(母食, matriphagy)' — 새끼가 어미를 산 채로 먹는 — 전략이다. 적어도 세 계통의 사회적 거미에서 독립적으로 진화했다. 항상 배고픈 군집에서 어린 개체가 가장 먼저 굶으므로, 어차피 한 번 번식하고 죽는(단회번식) 종이라면 자기 몸을 새끼에게 넘기는 쪽이 유전자의 관점에서 이득이다. 논문이 밝힌 메커니즘은 섬뜩할 만큼 정교하다.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토해 먹이기 시작하면 호르몬 연쇄가 일어나 내부 장기가 정해진 순서 — 말초 근육과 신경, 내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화 기관 — 로 녹기 시작하고, 어미는 문자 그대로 자기 장기를 토해 새끼를 먹인다. 더 줄 것이 없어지면 새끼들이 어미 위로 몰려들어 마무리한다. 이 연쇄는 새끼가 부화해 먹이를 요구하기 전에는 시작되지 않으며, 알주머니가 제거되면 어미는 계속 산다. 그러나 한번 발동하면 되돌릴 수 없다. **[해석]** "객관적으로는 완벽하게 말이 된다. 먹히기로 한 어미들이 더 많은 새끼를 살려남겼고, 그래서 그 유전자가 퍼졌다. 합리적인 경제적 결정이다. 결국 산수가 이긴다. 산수는 언제나 이긴다." 에세이의 마무리 문장이다. 협력의 신화를 부수는 것도 산수(마리당 수익)이고, 모성의 잔혹한 극단을 설명하는 것도 산수(유전자의 기대값)다 — 보이는 합계 뒤의 보이지 않는 계산서를 읽는 것이 진화 생물학에서도 제1의 도구라는 점에서, 할로윈 특집이 오늘 리포트의 주제를 그대로 나누고 있다.

> **짧은 메모 — 상 하나.** **[사실]** 타일러 코웬이 카탈루냐 오스트롬 연구소(Institut Ostrom Catalunya)의 엘리너 오스트롬상을 받았다. 수상 강연은 11월 4일 바르셀로나. 노벨상 수상자 오스트롬은 공유지의 자율적 관리에 관한 연구로 유명한데, 그 이름을 딴 상을 받는 것치고 코웬의 소개는 두 줄로 짧다.

오늘의 필독 링크

· 인텔 폭락과 정부 지분 (CNBC): https://www.cnbc.com/2026/10/30/amazon-intel-earnings-big-tech-ai-spending-concerns.html

· 워싱턴포스트 사설 — 정부 주식 포트폴리오의 위험: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2026/10/30/intel-shows-danger-government-stock-portfolio/

· 카페 하이에크 링크 모음 (관세·무역적자 외): https://cafehayek.com/2026/10/some-links-3223.html

· 소매 범죄의 가격 전가 (Marginal Revolution): https://marginalrevolution.com/marginalrevolution/2026/10/the-pass-through-of-retail-crime.html

· 학업 관대함의 역효과 (Marginal Revolution): https://marginalrevolution.com/marginalrevolution/2026/10/the-unintended-consequences-of-academic-leniency.html

· 사이언티픽 리포츠 펍메드 색인 중단 (Retraction Watch): https://retractionwatch.com/2026/10/30/scientific-reports-pubmed-on-hold-national-library-medicine-evaluation/

· 주말 읽을거리 — 1,400편 일괄 철회 외 (Retraction Watch): https://retractionwatch.com/2026/10/31/weekend-reads-mega-journal-on-hold-at-pubmed-1-billion-lawsuit-against-elsevier-tossed-i-used-ai-to-fake-a-scientific-paper/

· 사회적 거미와 모식(母食) (Crooked Timber): https://crookedtimber.org/2026/10/31/occasional-halloween-paper-a-mother-gives-her-all/